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경험 도출

낮선 실습환경에서 실수할까봐 불안함 느껴

현장지도자가 지지해줄 때 성공적으로 적응

의미 있는 존재 되고자 노력하면서 정체성 확립

간호학생들은 낮선 임상실습 현장에서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적응하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두남 호서대 교수와 박명숙 건국대 교수 외 4인의 연구논문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대처 경험 :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에서 제시됐다.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6년 11월호에 게재됐으며,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한 질적연구논문이다.

연구팀은 임상실습을 경험하고 있는 간호대학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면담 또는 포커스면담 등 질적면담을 실시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결과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대처 경험의 중심현상 및 핵심법칙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로 도출됐다.

0...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이라는 '낮선 환경에 놓여짐' 상황에서 막막함과 불안함을 느꼈다. 환자·보호자·간호사 등과의 의사소통, 실수할까봐, 학교를 망신시키는 학생이 될까봐 불안해했다. 한편으로는 실제 간호 현장에 한 발 더 다가간다는 면에서 설렘을 느끼기도 했다. (인과적 조건)

첫째, '안정적이지 않은 실습 여건'으로 월거리 실습 시 숙소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실습을 위해 새벽에 나가

고 밤에 들어올 때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 둘째, '다양한 실습 교육환경'에서 표준화되지 않은 현장지도자, 편차가 큰 교육환경, 간호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감 등으로 혼란스러워했다.

셋째, '과중한 부담감'에는 과제로 인한 부담감, 신체적 및 심리적 부담감이 포함됐다. 넷째, '학생 신분으로서의 역할 한계'로 간호지식과 술기의 미숙함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단순보조업무가 반복되면서 역할한계를 느꼈다. 다섯째, '보장되지 않는 실습학생의 권리'로 아파도 실습시간을 채워야 할 때 서러웠고, 학생의 의무만 강조되고 관리용호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0...간호학생들은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조절해나가기 위해 3가지 전략을 활용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

첫째, '미숙함 극복하기'. 실습 전에 미리 학습하고 준비했으며, 잘 모르는 부분은 메모해 임상실습지도자에게 질문하거나 교과서 등을 찾아봤다. 기본간호술기를 동료들 간에 서로 연습해보면서 익히고,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관찰했다. 환자와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해 밝은 표정으로 인사 하고, 먼저 다가가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둘째, '현장지도자에게 인정받기' 위해 센스 있게 행동하고, 웃음짓기를 시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스스로 할 일을 찾아하려고 노력했다.

셋째, '심신 다스리기'. 담당 간호사가 호의적이지 않았을 때, 나는 간호사가 되면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긍정마인드로 대처했다. 실습학생들과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기분전환, 체력관리하기, 마음비우기, 회피하기 등을 활용했다.

0...간호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고 도와주는 조건은 3가지로 도출됐다. (중재적 조건)

첫째, '주변인의 지지'. 현장지도자가 친절하게 관심을 가져줄 때 적극적으로 실습했고, 지도교수가 힘든 상황을 들어주고 공감해주었을 때 잘 적응했다.

둘째, '실습 전 개인의 경험'. 실습 전에 기본간호술 프로토콜을 숙지하고 경험자의 조언을 듣는 등 사전학습을 한 경우, 봉사활동 또는 사회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실습에 더 잘 적응했다.

셋째, '실습조의 역할'. 실습 조원의 구성과 실습조원 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했다. 마음에 안드는 실습조원이 있을 경우 실습내내 힘들어했으며, 뒤처지는 친구가 있을 때 끝까지 같이 가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0...간호학생들은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면서 임상실습현장에 적응했다. (결과)

첫째, '현장적응력이 생김'. 임상실무에 대한 판단력이 좋아졌고, 노후자가 생기는 등 현장적응력이 향상됐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다.

둘째, '성숙해짐'.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실수를 통해 담대함과 초연함이 생겼고, 다른 사람의 태도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사교가 유연해졌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다.

셋째, '간호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김'. 이론과 실제의 연결고리로서 실습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몰도벨이 되는 간호사들을 보면서 자긍심이 커졌다. 간호직에 대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알게 돼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

정규숙·주혜진 기자

병원간호사회 간호문화 세미나

병원간호사회(회장·박영우)는 신규간호사를 위한 간호문화 세미나를 2월 10일 개최했다.

2016년에 임사해 병원생활에 적응한 신규간호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수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마음건강 스스로 지키기' 특강을 통해 "사람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특히 간호사는 업무 특성상 더 큰 스트레스를 겪고 이는 이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면서 "스트레스로부터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벗어나려고 애쓰기보다는 즐거운 경험을 늘리고 건강한 생활을 통해 견디는 힘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강에 앞서 전문MC 진형으로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경품추첨, 포토존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김숙현 기자 skkim@



서울시간호사회 간호정책 세미나

서울시간호사회(회장·김소선)는 '간호정책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2월 6일 개최했다. 건강보험 간호수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건강보험 간호수가 개선방안' 주제로 김윤미 을지대 간호대학 교수가 강연했다. 김윤미 교수는 "많은 국내외 연구에서 간호사 확보수준이 높을 수록 환자의 사망률과 재원일수가



김숙현 기자 skkim@

근거기반간호학회 총회 ... 교육사업 주력키로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회장·은영)는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2월 10일 열고 2017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학회는 올해 근거기반간호 연수교육과 근거기반실무적용 워크숍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학회지 '근거와 간호'의 질적 향상과 논문투고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한국연구재단 등재 준비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학술사업 및 홈페이지 정보제공을 통해 회원 확보와 관리에 힘을 기울인다. EBP 워크북을 제작·발간하고, 정책연구 및 협력사



주혜진 기자 hjjo@

중환자간호학회 총회 ... 학회지 질 향상 주력

한국중환자간호학회(회장·이영희)는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2월 10일 열고 2017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학회는 올해 중환자간호학회지 질 향상에 주력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 준비작업에 힘을 쏟는다. 연 2회 발간하던 학회지를 연 3회로 늘려 발간하고, 회원들의 논문투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회원들의 연구 및 교수 역량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학술대회와 학술세미나를 각 2회씩 개최할



김숙현 기자 skkim@

간협 '올해의 간호인상' 수상자 선정

김정란 한국디아코니아 상무이사

대한간호협회는 '올해의 간호인상' 수상자로 김정란 간호사(한국디아코니아 상무이사)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2월 22일 개최되는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에서 진행된다.

올해의 간호인상은 지난 1년 동안 사회적으로 간호전문직 위상정립에 크게 기여했거나 귀감이 될 만한 선행과 봉사활동을 통해 간호정신을 구현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1995년부터 시상해왔다.

김정란 상무이사는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자세로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왔다.

'디아코니아 노인요양원' 운영을 통해 각종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향상, 신체활동지원, 영적관리 및 정서지원 등을 하고 있다. 디아코니아 노인요양원은 전남 무안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김정란 상무이사는 영세가정,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활발히 펼쳐왔다. 디아코니아 장학금제도를 만들어 영세가정의 중·고등학생에게 매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결핵환자를 위한 한산촌 결핵요양소와 자활촌을 운영했다. 전남간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주혜진 기자 hjjo@

*수상자 인터뷰 기사는 3월 2일자 간호사신문에 실릴 예정입니다.

'신규 온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 탑재' 안내

대한간호협회는 신규 온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탑재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프로그램명	이수 인정시간
호흡기계 환자간호 - SBAR 의사소통 방법의 통합적 적용	8시간

* 자세한 사항은 KNA에듀센터 홈페이지(edu.koreanurse.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보완·대체요법간호사회 수지오법전문가교육

한국보완·대체요법간호사회(회장·이혜영)는 '수지오법전문가교육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3월 9일·16일·23일, 4월 6일·13일 오후 6시30분 이후 여대 웰랜드 107호에서 열린다. 교육비 40만원(교재, 재료비 포함). 선착순 30명 모집. 한국보완·대체요법간호사회 및 고려수지침학회 수료증 수여. 교육신청서 홈페이지(catnurse.co.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제15회 호흡재활 워크숍

연세대 의과대학 회귀난치성 신경근육

병재활연구소와 대한숨재활연구회는 제15회 호흡재활 워크숍을 3월 18일 오전 8시30분 강남세브란스병원 본관 2동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에서 주관한다. 수면무호흡의 진단 및 치료, 중환자실에서의 호흡재활, COPD 및 노인 환자의 호흡재활 등 주제강연 진행. 3월 12일까지 등록. 02)2019-3490.

경북간호사회 사무처장 모집

경북간호사회는 사무처장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이력서 등 지원서류 2월 28일까지 이메일(gba@koreanurse.or.kr)로 제출. 자세한 사항 간호사회 홈페이지(gbanurse.or.kr) 참조. 053)743-2721.

보수교육 프로그램 정보 안내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oreanurse.or.kr

29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기술직 공무원 (간호직) 보건직 보건진료직 의료기술직 국가면허시험 (간호사국가고사) 위생사 연세대 RN-BSN

최다합격자 + 입소문, 합격생이 적극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2017.1월 대방열림고시학원 직강 현황 모습

- ★ 대방열림고시학원의 강점 ★
- 과목별 수험생 선호도 1위 교수진 구성
- 매년 기술직 공무원 최다합격자 배출
- 수강생이 가장 많고 입소문으로 유명한 학원
- 학원직장을 그대로 촬영한 최신 동영상 강의
- 최고의 시설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
- 최신 스마트폰 동영상 강좌 시스템
- 체계적인 시스템 및 학원직장 연중 무중단 진행

매일 초 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 > 심화반 > 기출문제반 > 단원별·모의고사 문제풀이반

개강일 2017.2.4 보건복지부 특강

2017.4.8 시행 / 학원 강의 & 동영상 강의 모두 진행 / 현재접수중
보건직 / 방역직 공무원 전문카페 '진통' http://cafe.naver.com/yulim21c

상담 문의 02-823-4700 서울 지하철 1호선 대방역3번출구
빽스 우측건물(1층 피자헛,2·4층학원)

www.yulimgosi.com